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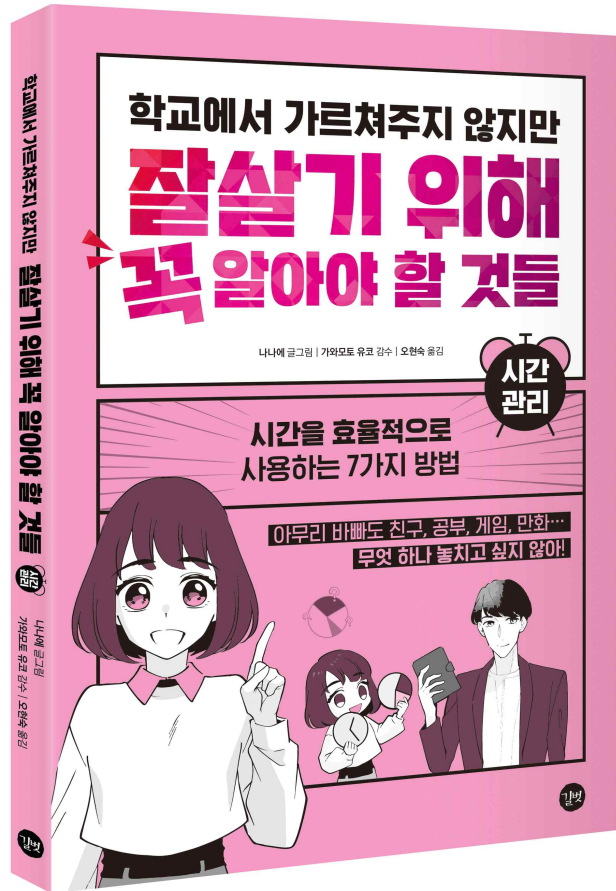
독자의 1초를 아껴주는 정성

주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10길 56 대표전화 (02)332-0931 팩스 (02)338-0388 홈페이지 www.gilbut.co.kr

담당자 자녀교육서팀 황지영 02-330-9829 jyhwang@gilbut.co.kr

(부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7가지 방법

#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지만 잘살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것들-시간 관리



글그림 | 나나에 감수 | 가와모토 유코 옮긴이 | 오현숙 발행일 | 2022.7.7.

분야 | 어린이 판형 | 국판(148x210) 형태 | 무선 페이지 | 130쪽 정가 | 12,000원

ISBN | 979-11-407-0032-5 (74300) 세트 ISBN | 979-11-407-0031-8 (74300)

## ■ 책 소개

### 똑똑한 어른으로 성장하고 싶은 아이에게 꼭 필요한 살아 있는 지식 시리즈

어른이 되어 사회에 나와 보니 학교 다니며 배웠던 국영수도 중요하지만, 살아가는 데 그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같은 24시간이 주어져도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자기 일에 높은 성과를 내면서도 취미생활도 프로급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월급을 받고 직장생활을 시작해도 어느새 남들보다 자산을 크게 불린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소속으로 일을 해도 팀원들의 존경을 받으면서도 높은 성과를 내는 리더가 있습니다. 이런 걸 일찌감치, 학교 다닐 때 국영수와 함께 배웠다면 더 멋진 어른이 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래서 이 시리즈가 탄생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살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것들’을 하루라도 일찍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부터 자신의 삶을 더욱 알차고 즐겁게 향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시간을 스스로 관리하는 법, 돈과 자본주의를 바로 알고 자신만의 미래를 세우는 법, 동료들을 이끌어 원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은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지만 살아가는 데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이 지식이 왜 필요한지 쉽게 깨닫고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재미있는 만화와 짧지만 깊이 있는 글을 결합했습니다. 평범한 아이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만화는 공감과 흥미를, 와세다 대학교 교수 등 분야 전문가들이 감수한 글들은 지식과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이 책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매일매일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미래 인재들이 탄생하기를 기대해봅니다.

## ■ 출판사 리뷰

### 오늘부터 갓생 사는 법!

“아무리 바빠도 친구, 게임, 만화도 놓칠 수 없다고요!”

“평소에 네가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는 아니?”

“망했어! 대회 준비하느라 공부를 잠깐 손에서 놔더니 수학 성적은 뚝뚝 떨어지고.... 이러다 이도저도 안 돼서 콩쿠르도, 학교 시험도 다 망치면 어떡하지!” 미나미의 생활이 처음부터 뒤죽박죽이었던 건 아니었다. 학교와 학원에 다녀와서 숙제를 하고도 좋아하는 만화책을 실컷 볼 시간이 예전에는 있었다. 그런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도 어려워지고, 신경 써야 할 과제나 시험이 늘고, 좋아하는 연예인이 생기면서부터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다. 중요한 음악 콩쿠르를 앞두고 수학 시험 자체를 깜빡한 미나미에게 과외 선생님이 생겼다. 그런데 과외 선생님은 공부는 가르쳐주지 않고 수첩부터 건네는데....

주어진 시간표대로 눈앞에 닥친 일을 정신없이 해치우고 때로는 해야 할 일을 미루며 하루하루 살아가던 중학생 미나미는 과외 선생님을 만나고부터 시간 관리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게 된다. 시간 관

리가 왜 필요한지부터 하루 시간을 인식하는 법,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구분하는 법, 필요 시간을 계산하는 법, 마감을 설정하는 법 등을 배운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파악하고, 내 평소 역량을 고려해, 제한된 시간 동안 어느 일에 얼마나 집중할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바로 시간 관리 능력이다. 세계적인 리더를 배출하는 하버드대학교, 와세다대학교 등 유수의 대학교가 신입생을 교육할 때 시간 관리법을 우선순위에 두는 이유는 한정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학교며 학원이며 바쁘지 않은 아이들을 찾는 게 더 힘든 요즘, 주어진 시간표대로 끌려다니다 보면 정작 몸만 바쁘고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흘러보내게 되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 이 책은 아이가 본인의 시간을 스스로 느끼고 하루하루를 계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을 잘 인식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꼼꼼하게 알려준다.

## ■ 저자 소개

### 글그림 나나에

일러스트레이터이자 만화가로서 아동 도서를 주로 그리고 있다. 《스톱! 게임 의존》 시리즈, 《싸우는 요괴 대박과》 등을 집필했다.

### 감수 가와모토 유코

와세다대학교 대학원 경영관리 연구과 교수. 매킨지&컴퍼니에서 근무했다. 저서로 《가와모토 유코의 시간관리 혁명》이 있다. 와세다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도서 《캠퍼스 핸드북》을 감수하는 등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하는 법을 널리 알리고 있다.

### 옮긴이 오현숙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한일통역번역학과 교수. 고려대학교와 동 대학원 사회학과 졸업 후 일본 고베대학 대학원에서 사회문화 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KBS 연수원 일본어 강사와 숙명여자대학교 일본학과 겸임교수 등을 거쳐 현직에 있다. 저서로 《일본어 마스터 1000》, 《일본어 첫걸음》 등이 있으며, 《미운 네 살, 듣기 육아법》,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번역했다.

## ■ 책 속으로

“우선 학교에 있는 시간도, 각 교과목의 시간표까지 스케줄에 자세하게 적는 게 좋아”

“네? 그렇게까지요?”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집을 나서고 몇 시에 학교에 도착하는지. 1교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적어보는 거야.”

(중략) “이렇게 수첩에 적어보니 시간이 의외로 있다는 걸 알게 됐지?”

<Chapter 1.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중>

“드라마 보는 게 ‘해야 할 일’인가...?”

“월, 금, 토 드라마는 절대 빼먹으면 안 되니까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드라마 보는 건 ‘하고 싶은 일’이지. 숙제 같은 ‘해야 할 일’과 구분하는 게 가장 먼저 할 일이야.”

“아, 그런 거예요?”

<Chapter 2.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우선이야! 中>

시간은 짧게 걸리지만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일은 바로 실행에 옮기세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중요한 일이나 이뤄내고 싶은 일은 시간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걸 권해요. 지금의 나와 미래의 나에게 중요한 일이나 도움 되는 일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 경험이 쌓이다 보면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지요.

<Chapter 2. 할 일을 전부 적으면 우선순위가 보인다 中>

## ■ 차례

프롤로그\_ 시작은 한 권의 수첩으로부터

Chapter 1.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의식하려면?

Chapter 2.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우선이야!  
할 일을 전부 적으면 우선순위가 보인다

Chapter 3. 출구부터 생각한다?!  
무엇을 언제까지 끝낼까?

Chapter 4. 주간 스케줄과 일간 스케줄  
주간 스케줄과 일간 스케줄 100% 활용하는 방법

Chapter 5. 스케줄은 보기 쉬워야 해!  
색을 다르게 사용하면 스케줄이 한눈에 보인다

Chapter 6. 틈새 시간에 무엇을 할까?  
틈새 시간을 알차게 활용하려면 준비가 필요하다

Chapter 7. 스케줄은 바뀔 수 있어!  
불가능한 스케줄을 가능한 스케줄로 바꾸려면

에필로그\_ 선생님의 선물